

정원 조성 · 인력 양성 ‘정원드림프로젝트’

전주시, 정원분야 청년 전공자 · 전문가와 함께 도심 속 ‘폴리네이터 가든’ 5곳 조성

전주시가 정원드림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속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고, 관련 분야 미래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올해 산림청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추진한 ‘2025년 정원드림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청년 5인과 전문작가 1인이 1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 동안 정원 디자인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정원분야 현장실용형 실습 프로젝트이다.

시는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산림청이 주관한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3억7500만 원의 정원 인프라 구축비를 확보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프로젝트 참여팀들은 ‘폴리네이터 가든’을 주제로 전주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었다. ‘폴리네이터 가든’은 기



동실운동단-세상에서 가장 작은 작가 정원

후위기로 서식처를 잃어가는 수분 매개체(벌, 나비 등 곤충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 정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원은 △서곡 문화대공원 부근 경관녹지 2개소 △평화동 골드클래스 2차 앞 경관녹지 2개소 △월

드컵경기장 입구 부근 1개소 등 시민 생활권 내 5곳에 조성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여한 5개 팀은 각각 △자란 다(꽃 빠는 정원, 꽃피는 생태계) △

동실운동단(세상에서 가장 작은 작가) △숨결(다시:자연으로) △결정(예테의 결) △초월(동화) 등을 주제로 벌과 나비의 생태계를 고려한 따뜻한 정원을 조성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정원 분야의 청년들이 실무경험을 얻어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정원 작가 등 정원 분야의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연순환복지국장은 “정원도시 전주에서 청년들이 정원 분야의 미래를 발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새롭게 조성된 정원들은 청년들이 기획하고 조성한 의미 있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원드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원사업을 발굴 · 추진해왔으며, 이렇게 조성된 정원은 도시숲 정물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덕진공원,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새단장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 속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이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전주시는 지난해 연지교 재가설과 수변쉼터 재설치, 전통담장길 조성 등 덕진공원 내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한 데 이어 올해 덕진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덕진공원 기반시설 정비의 마지막 단계로 총 32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입구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과 원형광장을 조성하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열린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원형광장 바닥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디자인과 야간 조명이 적용돼 공원의 주 · 야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창포원’을 전통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다.

‘창포원’은 단웃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옛 풍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전통공간으로 조성되며, 시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덕진공원이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서학동예술마을~한옥마을~덕진공원을 잇는 전주 도심권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덕진공원을 활용한 계절별 축제와 야간경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 관광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덕진공원에서는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KBS ‘전국노래자랑’ 전주편이 펼쳐졌다.

이날 모처럼 덕진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노래하고 응원하며 새롭게 단장한 덕진공원의 변화를 함께 축하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페스타 축하행사 ‘함께가을’ 풍성

24~26일 전주비빔밥축제와 함께 홀로그램쇼 · 공연 등 진행

전주시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5’가 전주비빔밥축제와 함께 펼쳐지는 축하행사 ‘함께가을’로 절정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전주비빔밥축제’와 축하행사 ‘함께가을’을 한

꺼 개최한다.

특히 가을이 익어가는 절정의 순간 펼쳐지는 축하행사 ‘함께가을’은 첫날 오후 7시, 홀로그램쇼와 멀티미디어&불꽃놀이쇼, 인기가수 공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세리머니 등으로 포문을 연다.

전주페스타 2025의 축하행사인 ‘함께가을’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간 시간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허풍선이 과학쇼, 브레드아발소 싱어퐁소) △길목 과학놀이터 · VR · AI 등 첨단 미래 체험 △한복 · 민속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전주의 가을밤에 취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K-pop 댄스 및 인기가수 공연 등이 행사장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축제 현장에서는 △플라보 팝업스토어(농심, 문화연필, 육육겔즈, 하이트진로) △로컬 디지털 페어 ‘달콤스토어’ △완산병커 캐릭터 ‘병기 포도존’ 등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형 복지모델인 ‘함께라면’ 운영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의 전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형 복지모델 ‘함께라면’ 벤치마킹 전국서 이어져

전주형 복지모델인 ‘함께라면’ 운영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의 전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함께라면’ 사업이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에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9월 계통시의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지자체와 의회, 복지기관 등 총 40여개 기관, 170여 명이 ‘함께라면’ 사업현장을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놓고 누구나 먹고 가는 공유공간’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위기에 놓인 가구를 총출하게 발굴 · 지원하는 전주형 복지사업이다.

특히 방문기관에는 파주시청과 충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군산노인종합

복지관 등 전국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포함돼 있다.

방문 기관들은 전주시로부터 현장 운영 사례와 사업 성과를 공유받고, 공간 조성 방식 · 운영 예산 · 자활근로자 참여 구조 등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익산시를 시작으로 광명시 · 파주시 · 충주시 · 부산 동구 등 총 5개 지자체가 ‘함께라면’ 모델을 도입해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 전주시를 다년간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함께라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무더위 · 한파 쉼터로도 주목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에서 현장을 방문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전주 ‘함께라면’ 모델에 주목해 정책분석을 위한 담당자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교도소 이전 예산 확보 지원 촉구

전주시의회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 · 2동)이 대표발의한 전주교도소 이전 · 신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올해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위한 재정 지원과 2030년 준공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토지보상비 부

족분 63억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전부지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2026년도 사업 예산안 반영 및 사업비 안정적 확보 △법무부의 이주단지 보상 및 이전부지 신축 사업 준공 목표 달성 △전주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국립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인재DB 구축 추진

전주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역량과 시정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전주시 청년인재DB(청년전집)’ 구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인재DB는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정보와 관심 분야, 활동 경력 등을 수집해 청년이 시정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재풀’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축적된 DB를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 포럼,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



고, 매월 1~2회 정책 · 사업 정보를 안내해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단체를 통한 홍보 협조 요청과 청년이음전주 · 각종 청년행사 현장 오프라인 안내, 청정지대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 홍보를 병행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제31회 정읍시민의 날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기념식 10:00

2025. 11. 1.(토) 09:20~17:00

정읍시

【장 소】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38-5)

【참석대상】
정읍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식전공연, 기념식,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폐회식 등

【식전공연】
정읍시립국악단, 국악인 신동재, 태권도공연단 싸울아비